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 학술지 게재논문 중심으로 -

이혜민\*\* · 고경순\*\*\*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국내 대학교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준영, 신호창, 2018).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5만 명으로 1만 2천 명이었던 2003년을 기준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교육부, 2020).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 첫 번째 요인은 정부 정책에서 기인한다. 교육부는 2003년에 시행한 'Study Korea Project'와 2015년 발표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통해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학 평가와 재정 문제로 예상된다. 2006년에 처음으로 대학 평가에서 도입된 국제화 부분 평가로 인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강홍준, 2019). 또한 국내 학령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 역시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유입하게 된 큰 요인이다(김승일, 이문준, 2021).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급급해 유학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입학하게 되어 대학생활 부적응을 겪고 이것이 중도탈락 또는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4,294명이었던 불법체류 유학생 수는 2018년 단 3년 만에 1만 2,529명으로 급증했다(강홍준, 2019).

유학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업자에게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낮은 한국어 능력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마징징, 2021)와 낮은 자기효능감(김령, 임선아, 2021), 우울과 불안의 증가(이안나, 박경아, 2019)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전주대학교 정착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순천향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조교수, kks314@jj.ac.kr

의 성공적인 문화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승희(2011)는 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밝혔고 진미경과 조유진(2011)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신건강과 적응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를 통해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문화 적응과 학업수행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표현예술심리치료가 하나의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현예술심리치료란 “인간의 성장발달 그리고 치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지, 스토리텔링, 댄스, 음악, 시문학, 동작, 꿈작업, 시각예술 등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실천기법이다”(Atkins et al., 2003, p. 4). 표현예술심리치료는 심리정서지원 중에서도 방어기제나 언어 사용에 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 중재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내담자의 문제나 장애를 자연스럽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김진숙, 1993). 또한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중재 방법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예술표현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대학 부적응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어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을 대상자들과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정보, 매체, 중재내용, 측정도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도와 성공적인 학업 수행 및 문화적 적응을 높이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분야별 개입도구와 중재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결과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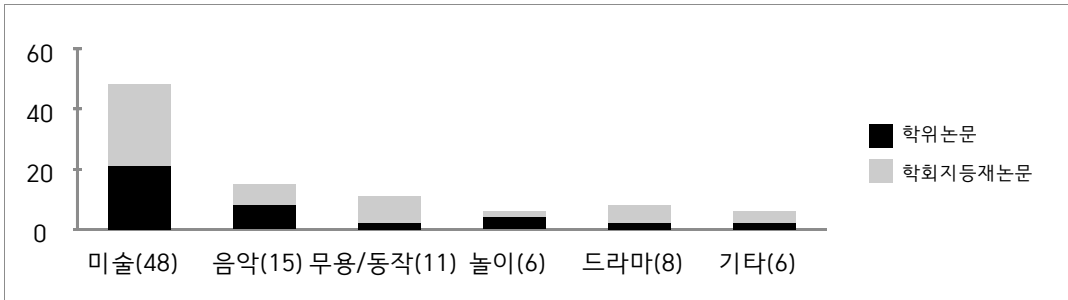
## II. 연구방법

### 1. 문헌검색과 선정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타 예술치료 분야 동향연구 방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음악치료 분야에서 고은진과 이진형(2018)의 연구와 미술치료 분야에서 임현진과 박소정(202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문헌검색 및 선정의 과정(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은 체계적인 문헌고찰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었다.

검색 대상 문헌은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가 처음 발표된 2008년부터 2021년 8월로 한정하였다. 국내 자료 수집을 위해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에서 ‘유학생’, ‘표현예술심리치료’, ‘미술’, ‘음악’, ‘놀이’, ‘무용’ 등을 키워드로 선정하

고 조합하여 논문을 추출하였다. 국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Academic Search Complete, Google Scholar, PsycINFO에서 국문과 동일한 키워드인 ‘International Student’, ‘Foreign Student’, ‘Art Therapy’, ‘Music Therapy’, ‘Movement Therapy’, ‘Play Therapy’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총 94편의 분야별 논문 편수와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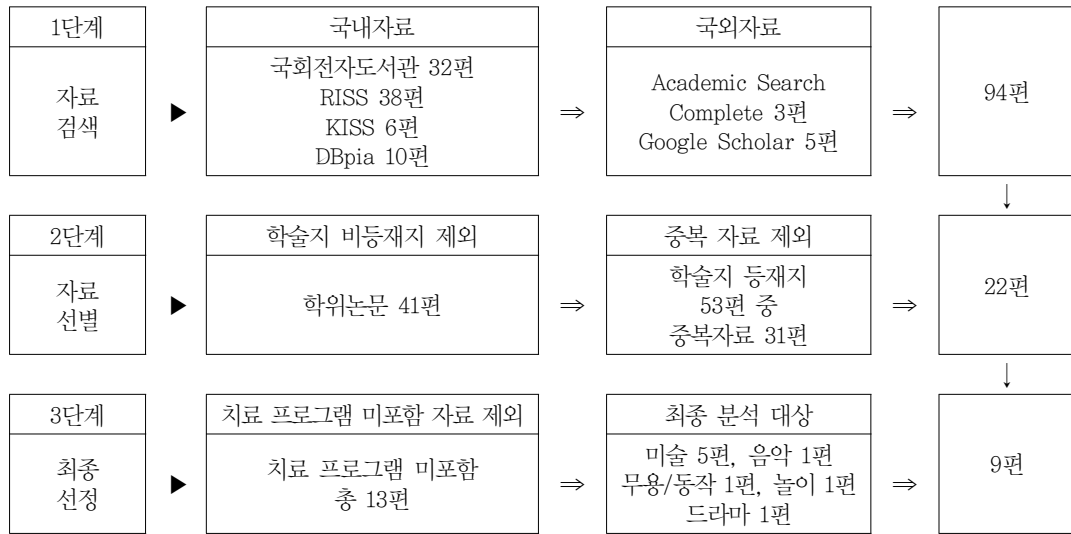
<그림 1> 1단계 분야별 자료 검색의 결과 (총 94편)

## 2. 문헌선정 및 배제기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포함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해외 학술지 게재 연구물이다. 선정 과정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을 제외한 이유는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의 중복 가능성 배제와 동료평가(Peer Review)의 검증을 거친 학회지 논문들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두 번째는 원문의 초록 및 내용의 열람이 가능한 연구이다. 세 번째는 유학생의 범주를 대학에 속한 한국어 연구 과정에 등록한 연수생, 대학 학위 과정에 등록한 재학생, 대학원 학위 과정에 등록한 대학원생 및 연구원생으로 한정하였다. 네 번째는 표현예술심리치료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 5개의 영역인 미술, 음악, 무용/동작, 놀이, 드라마 치료로 제한하였다(Malchiodi, 2004). 다섯 번째는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최소 5회기 이상 진행한 연구이고 여섯 번째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 명시된 연구이다.

## 3. 자료추출 과정

자료추출 결과, 1단계 자료 검색에서는 국내 및 국외에서 연구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동향 파악이 가능한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여 <그림 1>과 같이 총 9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단계 자료 선별 과정에서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41편을 제외한 뒤,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총 31편을 제외하였다. 3단계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설계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여 총 9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분야별로 미술치료 5편, 음악치료 1편, 무용/동작치료 1편, 놀이치료 1편, 드라마 치료 1편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자료 검색 및 선별의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검색 및 자료선별 과정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자는 Microsoft Excel 20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첫째, 각 연구물마다 연구 참여자 및 프로그램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연령, 직군,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 실력과 프로그램의 인원, 회기, 시간을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둘째, 표현예술심리치료의 분야별 개입도구와 중재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와 연구결과를 알아보고자 객관적 및 투사적 도구, 질적자료 종류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참여자와 프로그램 기본구조

##### 가. 참여자 정보(연령, 직군,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 실력)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기준을 어학연수생,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으로 제한하였다. 각 연구마다 참여자의 연령을 표시하는 방법이 상이하어 평균 연령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대부분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지은과 문소영(2019)의 연구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연령은 성인 초기에 해당되었다. 참여자들의 직군은 대학생과 혼합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3편(33.35%), 대학원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22.2%),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11.1%)로 나타났다. 혼합 직군 대상 연구 총 3편 중 2편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의 비중이 더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국적은 9편 중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이었다. 이는 연구 자료추출 과정 1단계에서 검색된 총 94편의 논문 중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하거나 대상으로 한 연구가 총 71편으로 과반수

이며 교육부(2020)에서 밝힌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 1위가 중국인 것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 체류 기간은 다양한 거주 기간의 참여자가 포함된 혼합 연구가 총 5편(55.5%)로 가장 높았고 이 중 2편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에서 시작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체류기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유학 생활 초기의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시사한다.

한국어 실력은 미국 내 유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된 윤혜인(2020)의 연구와 미기재 연구 2편을 제외하고 연구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표기하는 방법이 상이하였다.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자체적으로 상, 중, 하로 나눈 연구가 3편(33.3%)으로 가장 높았다. 3편 모두 ‘한국어 실력 하’의 비중이 33.3% 이하였고 나머지 3편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나 한국어 능력 보통 이상의 수준을 의미하는 ‘4급’에서 ‘6급’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기재 연구 중 이주혜(2019)의 연구도 참여자의 직군과 체류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참여자의 한국어 실력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언어와 동작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드라마치료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은 상위권 등급인 ‘5급’에서 ‘6급’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프로그램 정보 분석 결과는 <표 1, 2>와 같다.

<표 1> 연구목록 (분야별 연도순으로 정리)

분류 (분야)	연구자 (연도)	연구정보			세션정보			
		학술지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령	참가인원 (실험*/ 비교**)	회기 (주기)	시간 (분)
1 (미술)	이정민 이미옥 (2010)	예술심리 치료연구	실험연구 (단일/사전 사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20 -26	6 (6/X)	12 (주2회)	90 -120
2 (미술)	박수정 박미향 (2015)	미술치료 연구	실험연구 (단일/ 사전사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22.5 (평균)	4 (4/X)	13 (주1회)	90
3 (미술)	이주혜 (2019)	인문사회 21	내러티브 연구	미술치료 경험	27	1 (단일 사례)	18 (주2회)	100 -120
4 (미술)	윤혜인 (2020)	한국 예술치료 학회지	사례연구	적응문제 (학교생활, 문화)	22 -24	6	6 (주2회)	60
5 (미술)	최아린 이매화 한경아 (2021)	미술치료 연구	실험연구 (통제/사전 사후****)	회복탄력성	21 -24	10 (5/5)	8 (주1회)	90
6 (무용/ 동작)	양진숙 차수정 (2016)	한국 무용교육 학회지	실험연구 (통제/ 사전사후)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19 -26	60 (30/30)	15 (주1회)	120

7 (음악)	이지은 문소영 (2017)	한국 음악치료 학회지	실험연구 (통제/ 사전사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10대 -20대	20 (10/10)	8 (주1회)	60 -90
8 (놀이)	오승희 (2011)	상징과 모래놀이 치료	실험연구 (단일/ 사전사후)	외로움, 불안 생활스트레스 학교적응능력	22 -29	6 (6/X)	12 (주1회)	45
9 (드라마)	박우진 이상무 (2016)	청소년학 연구	현상학적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24 -27	10	5 (미기재)	180

\*문헌 3,4,9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로 통제집단이 해당되지 않음

\*\*비교집단이 있는 연구

\*\*\*단일/사전사후: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

\*\*\*\*통제/사전사후: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

〈표 2〉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 직군,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 실력

분류	분야	연구자 (연도)	연령	직군	국적	체류기간	한국어실력
1	미술	이정민, 이미옥 (2010)	20~26세	어학연수생	중국	미기재	어려움이 없는 정도
2	미술	박수정, 박미향 (2015)	22.5세 (평균)	대학생	중국	평균 3년	미기재
3	미술	이주혜 (2019)	27세	대학원생 (연구원)	아프리카	8년	미기재
4	미술	윤혜인 (2020)	22~24세	대학원생	중국	1년 미만 (미국거주)	미해당
5	미술	최아린 외 (2021)	21~24세	대학생	중국	1년 이상	한국어능력 4급 이상
6	무용 /동작	양진숙, 차수정 (2016)	19~26세	대학생 대학원생	중국	1년 미만 ~ 4년	초급~고급
7	음악	이지은, 문소영 (2017)	10~20대	대학생	중국	1년 미만 ~ 2년	한국어능력 1급~6급
8	놀이	오승희 (2011)	22~29세	대학생 대학원생	중국	1년~5년	한국어능력 무급~4급
9	드라마	박우진, 이상무 (2016)	24~27세	대학생 ~ 박사과정생	중국	2년~5년	한국어능력 5급, 6급

#### 나. 프로그램 정보(인원, 회기, 기간)

인원에 대한 분석 결과는 총 9편 중 6명이 3편(33.3%), 10명이 2편(22.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음악치료와 무용/동작치료를 제외한 분야들에서는 인원의 수가 1명에서 10명 이하로 구성되었고 참여 인원이 1명인 이주혜(2019)와 참여 인원 6명에게 개별 프로그램을 실시한 오승희(2011)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7편의 연구는 집단치료 형태로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는 12회기(2편, 22.2%)와 8회기(2편, 22%)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범위는 최소 5회기에서 최대 18회기로 비교적 다양하게 제

공되었다. 1회기 당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미술치료는 총 5편 중 4편(80%)이 90분 이상, 무용/동작치료는 120분, 음악치료는 60분에서 90분이었다. 가장 짧은 시간인 45분으로 실시된 것은 놀이치료이며, 가장 긴 시간인 180분으로 실시된 것은 드라마치료이다.

## 2. 분야별 개입도구, 중재내용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는 다양한 예술매체에 대한 경험을 심리치료에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 분야별로 회기에서 제공된 개입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 가. 미술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미술치료는 5편이며 중재 방법 유형은 총 6가지(그리기, 만들기, 소조, 파괴, 콜라주, 만다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그리기(24회, 44.5%)이며 그리기 중재 방법 중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이름 그리기’와 ‘신체 그리기’가 각각 3회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미술치료 중재방법 분석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		주제	비율 (%)
		유형(사용횟수)	세부내용		
그리기	종이류 디지털매체	난화 (2)	영화감상 감정난화	감정표현	3.7
		이름 그리기 (3)	꾸미기 만들기	감정표현, 관계형성	5.6
		협동그림 (2)	나의 고민 마을 꾸미기	유학생생활고민 학업스트레스	3.7
		신체 그리기 (3)	신체본뜨기 자화상, 손 그림	문화, 언어 두려움 자기인식	5.6
		그래프 (2)	인생 미래인생	자기탐색	3.7
		자연물 비유 (2)	나무 꾸미기, 꽃밭 꾸미기	자아상 탐색 지지체계 강화	3.7
		기타 (10)	스토리보드 그리기(9분할, 감정곡선, 패턴) 나의 장점 안전한 공간 가족과 결혼식 상징화, 자유화 시 쓰기	생각하고 느낀 한국 문화적응감정 성취, 그리움, 소망 부정적 감정, 실망 자기인식 감정명료화	18.5
합계	24			44.5	

만들기	종이류 그리기 디지털매체	협동 만들기 (4)	희망, 장집나무 마을, 우산꾸미기	긍정적 자아상 보호 자원 강화 잡재력	7.4
	그리기 만들기 가면	가면 만들기 (2)	가면, 종이가면	내재된 모습	3.7
	양말 실, 바늘 만들기 디지털매체	인형 만들기 (3)	소망인형 희노애락 아바타 여행동반 아바타	미해결 문제 극복 집단 라포 형성 인적자원인식	5.6
	종이류 만들기	기타 (4)	팝업카드 나를 표현 마음 상처 표현	과거의 노력 칭찬 잠재 자원 발견 웨딩화관	7.4
	<b>합계</b>	<b>13</b>			<b>24.1</b>
소조	종이류 그리기 점토, 찰흙 클레이	자유작업 찰흙작업 (6)	칼라점토작업 싫어하는 사람 만들고 부수기	지금 떠오르는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	11.1
파괴	종이류 그리기 휴지 풍선 신문지 디지털매체	휴지던지기 풍선 터트리기 신문지 찢기 바구니비우기 (4)	문화차이 부정적인 감정 표현, 해소 스트레스 분출 Covid 19 부정적정서 전환	한국과 중국 (긍정적·부정적인 면) 화 한국 문화와 언어 (두려움과 괴로움) 무거운 감정 바구니 비우기	7.4
콜라주	종이류 그리기 가위, 풀 디지털매체	기본 콜라주 이모티콘 (4)	유학의 힘든 점, 해결방도 내가 바라는 유학생생활 유학계기와 기대 감정 명료화	벽 나의 기대 지금 내 마음	7.4
만다라	종이류 그리기 디지털매체	감정통합 인생, 감정색 (3)	인생의 감사함 감정표현	인생만다라 지금 내 마음 감정표현	5.5
<b>합계</b>		<b>54</b>			<b>100</b>

## 나. 무용/동작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무용/동작치료 연구는 1편(양진숙, 차수정, 2016)이며 중재 방법 유형은 총 5가지(비디오 감상, 호흡법, 장단, 기본무, 부채춤)이다.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부채춤으로 11회(47.82%)이며 다음으로는 비디오 감상과 기본무가 각각 4회(17.39%)로 많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무용동작치료 중재방법 분석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		주제	비율 (%)
		유형(사용횟수)	세부내용		
비디오 감상	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4)	한국 다큐멘터리 한국/중국 무용역사 부채춤 영상	자기감정 인식 움직임 탐색 공감하기	17.39
호흡법	호흡	들숨, 날숨 (1)	프로그램 소개 라포 형성		4.3
장단	리듬	기본 굿거리 기본 자진모리 (3)	기본무를 통한 한국무용 리듬, 동작	자기감정 인식 움직임 탐색	13.1
기본무	동작	1동작(1·2번) (4)			17.39
부채춤	부채	부채사위 동작 무용극 (11)	부채춤 배우기 그룹 활동 브레인 스토밍 부채춤 연습·공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타인 감정 인식, 공감 의사소통 친밀감 형성 협동심 기르기	47.82
합계		23			100

### 다. 음악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음악치료 연구는 1편(이지은, 문소영, 2017)이며 중재 방법 유형은 총 2가지(구조화된 연구, 비구조화된 연구)이다.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매 회기 중재방법을 순환구조로 사용하여 검사 수와 비율이 동일하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음악치료 중재방법 분석(이지은, 문소영, 2017)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		주제
		유형 (사용횟수)	세부내용	
구조화된 연주	무울 타악기 유울 타악기 (handbell, tone chime) 감정카드	리듬모방, 창작 (unison, part, solo) 연주활동 즉흥연주 (8)	신체리듬활동 악기탐색 감정표현	향수, 두려움 문화적 충격, 열등감 의사소통, 불신 차별감, 미워함 사회적 고립
비구조화된 연주				

### 라. 놀이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놀이치료 연구는 1편(오승희, 2011)이며 중재 방법 유형은 총 1가지(모래놀이)이다. 놀이치료 연구에서는 한 가지 중재방법을 매 회기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놀이치료 중재방법 분석 (오승희, 2011)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		주제
		유형 (사용횟수)	세부내용	
모래놀이	모래상자 피규어	개별모래놀이 (12)	-*	상자에 대한 이야기 전체구성양식 태도 공간배치 관계성 주된 심리적 표현 범주별 피규어의 수

\*Note. -:미기재/파악불가

### 마. 드라마치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물 총 9편 중 드라마치료 연구는 1편(박우진, 이상무, 2016)이다. 드라마치료 중재 방법 유형은 총 1가지(소시오 드라마)이며 매 회기 동일한 중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드라마치료 중재방법 분석 (박우진, 이상무, 2016)

중재방법	매체	중재내용		주제
		유형 (사용횟수)	세부내용	
소시오 드라마	신문지 도화지 휴지, 천 칠판, 미술용품 접이의자	워밍업 (언어적, 비언어적) 등장인물 선정 장면구성 및 실연 (5)	문화적응 자신에 대한 신념 차별 및 좌절 장면 (설정 및 표현)	문화적응 어려움 한국중국의 문화차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신감

## 3.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

일반적으로 심리 측정 도구는 크게 객관적 검사(Objective test)와 투사적 검사(Projective test)로 나뉜다.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질문으로 검사 문항이 구성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 채점을 통해 수치화된 결과를 제공한다(Morey & Hopwood, 2008). 이와는 반대로 투사적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제시하고 여기에 자신을 투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참여자의 반응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게 드러낸 답변의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특징을 이해한다(Tuber & Meehan, 2015).

### 가. 객관적 검사 도구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총 9편 중 객관적 검사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총 6편이다. 검사 도구의 종류는 총 10가지이고 크게 4가지(적응 및 스트레스, 정서,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 탄력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에 객관적 검사 도구가 사용된 횟수는 중복 사용을 포함하여 총 13회이다. 적응

및 스트레스 관련 주제를 다룬 척도가 총 5회(38.4%)로 가장 많았고 정서 관련 척도,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척도가 각각 3회(23.1%)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 도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SIS)로 총 3회이며 다음으로는 자기효능감 척도(SES)로 2회이다. 이는 연구 대상자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심리 및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 것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소정, 2021)와도 일치하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객관적 검사 도구의 분석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객관적 검사 도구 분석

검사영역	세부영역	객관적 검사 도구	연구편수 (저자, 연도)	비율 (%)
적응 및 스트레스 관련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ASIS: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이정민, 이미옥, 2010) (박수정, 박미향, 2017) (이지은, 문소영, 2017)	23
	학교적응 능력	학교적응능력 척도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오승희, 2011)	7.7
	생활 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척도 (Revised Life Stress Scale)	(오승희, 2011)	7.7
	합계		5	38.4
정서 관련 척도	우울	우울 척도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박수정, 박미향, 2015)	7.7
	외로움	외로움 척도 (UCLA Loneliness Scale)	(오승희, 2011)	7.7
	불안	불안 척도 (BAI: Beck Anxiety Inventory)	(오승희, 2011)	7.7
	합계		3	23.1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척도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 (SES: Self Efficacy Scale)	(이정민, 이미옥, 2010) (양진숙, 차수정, 2016)	15.4
	성격강점	VIA-IS 척도 (Value in Action-Inventory of Strengths)	(양진숙, 차수정, 2016)	7.7
	합계		3	23.1
탄력성 관련 척도	회복 탄력성	한국판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척도 (YKRQ-27)	(최아린 외, 2021)	7.7
	자아 탄력성	캘리포니아 성격 척도 (CPI: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이지은, 문소영, 2017)	7.7
	합계		2	15.4
합계			13	100

## 나. 투사적 검사 도구

투사적 검사 도구는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Person-in-the-Rain: PITR)가 사용되었다.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는 구조화된 안내를 따라서 빗속의 사람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투사된 이미지를 통해서 환경적 스트레스와 대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정민, 이미옥, 2010; 박수정, 박미향, 2015)에서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는 스트레스 감소뿐 만 아니라 대처 자원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등 스트레스 완화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질적자료 종류: 셀프저널, 텍스트, 인터뷰, 설문지를 통한 경험의 의미 파악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총 9편 중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방법을 채택한 연구는 총 3편이다. 분석된 연구의 유형도 총 3가지(내러티브 연구,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이며 이에 따른 자료 수집 유형은 총 4가지로 셀프저널, 텍스트(메일, 메시지, 리포트), 설문지, 심층 인터뷰다. 질적자료는 수치화될 수 없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에 대한 경험에 대한 풍성한 데이터를 제공한다(Creswell, 2013, pp. 7-8). 세부 분석 내용은 후에 이어지는 질적연구 결과 분석인 <표 10>에 포함 된다.

## 4.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 가. 양적연구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총 9편 중 양적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총 6편이다. 유사한 주제에 따라 총 4가지(적응 및 스트레스, 정서, 자기효능감 및 강점, 탄력성)로 분류하였으며, 검사 영역은 크게 전체 영역과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전체 영역과 하위 영역 외에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PITR)가 추가되었다. 영역별 검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적응 및 스트레스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전체 영역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하위 영역은 모두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이지은과 문소영(2017), 박수정과 박미향(2015)의 연구에서는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PITR)의 결과로 스트레스 대처자원 및 능력이 증가하였고 학교 적응과 관련된 오승희(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력 증가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정서와 관련된 연구 중 오승희(2011)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 점수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도 정서(불안)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력성과 관련된 박수정과 박미향(2015), 최아린 외(2021), 이지은과 문소영(2017)의 연구에서도 각각 우울의 감소, 회복탄력성의 증가, 자아탄력성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에 따라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정민과 이미옥(2010)의 연구에서 중국인의 문화 특성 중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사전검사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9〉 양적연구 결과 분석

주제	세부주제	검사결과	검사영역	저자 (연도)
적응 및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	전체	이정민, 이미옥 (2010) 박수정, 박미향 (2015) 이지은, 문소영 (2017)
			하위 (두려움, 기타)	이정민, 이미옥 (2010)
			하위 (향수병, 두려움, 지각된 차별감)	박수정, 박미향 (2015)
			하위 (향수병, 두려움, 기타)	이지은, 문소영 (2017)
		증가	PITR 대처자원	이지은, 문소영 (2017)
			PITR 대처능력	박수정, 박미향 (2015)
		유의한 차이 없음	하위 (지각된 적대감, 문화적 충격, 적대감, 기타)	박수정, 박미향 (2015)
	하위 (죄책감)		이지은, 문소영 (2017)	
	학교적응력	증가	전체	오승희 (2011)
	생활 스트레스	감소	하위 (경험빈도)	오승희 (2011)
증가		하위 (중요도)	오승희 (2011)	
정서	우울	감소	전체	박수정, 박미향 (2015)
	외로움	감소	전체 (평균점수)	오승희 (2011)
	불안	감소	전체	오승희 (2011)
자기효능감 강점	자기효능감	증가	하위 (일반적, 사회적)	양진숙, 차수정 (2016)
		유의한 차이 없음	하위 (일반적, 사회적)	이정민, 이미옥 (2010)
	성격강점	증가	하위 (절제력 외 5개 영역)	양진숙, 차수정 (2016)
		유의한 차이 없음	하위 (절제력)	양진숙, 차수정 (2016)
탄력성	회복탄력성	증가	하위	최아린 외 (2021)
	자아탄력성	증가	전체	이지은, 문소영 (2017)

## 나. 질적연구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 9편 중 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총 3편이다. 연구 주제는 총 3가지로 미술치료 경험, 적응 문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다. 3편의 연구는 모두 미술치료 영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의미가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세부 분석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질적연구 결과 분석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주제 수집자료	연구결과
이주혜, 2019 (내러티브 연구)	미술치료경험: (셀프저널, 텍스트)	감정표현(혼란한 나의 감정), 내면과 마주하기 정체성회복, 자기성장계기 긍정적인 마음, 자존감회복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
윤혜인, 2020 (사례연구)	적응문제: (사전/사후설문지)	감정표현, 사회화 증진 통찰력의 습득
박우진, 이상무, 2016 (현상학적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층면접)	감정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 객관적 자기인식 문화와 사람에 대한 이해 향상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수행과 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 참여자 및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이다. 참여자들의 직군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령대는 20대, 국적은 중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발달에서 이 시기는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나이이며, 발달과정에서 정체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애순, 1999). 또한 조영아와 전우택(2004)은 인간에게 살아왔던 환경이 현저하게 바뀌는 것은 문화 적응에 따른 혼란과 심리 발달상의 과업이 겹쳐져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선미와 김영순(2021)의 연구에서도 이미 강조하였듯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지원이 중요하다.

체류 기간 및 한국어 실력 분석 결과, 총 9편의 연구 중 한국어 실력 미기재 또는 미해당 연구를 제외한 총 6편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상, 중, 하'의 기준으로는 '하'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한국어 능력에서는 상위 등급인 '4급'에서 '6급'인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드라마치료 참여자들의 언어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 참여자 대다수가 학위 취

득의 목적으로 유학을 온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대상의 특징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복잡 미묘한 감정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현하기란 한계가 있어 모든 심리치료 영역에서 치료사의 문화적 민감성과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 통역을 위한 보조 치료사 또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치료사를 활용하여 언어 제한 없이 자신의 감정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미술 치료사와의 경험이 새로운 삶에서의 적응에 대한 폐쇄적 제한이라는 한계점(이매화, 한경아, 2019)과 상담 내용 비밀유지가 어렵고 치료 프로그램을 수업의 연장으로 느낄 수 있는 단점(이정민, 이미옥, 2010)을 다른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들에서도 치료사와 내담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 인원 정보를 통한 치료 유형의 분석 결과, 총 9편의 연구 중 7편이 집단치료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의 증가, 문화적 고립 및 외로움 감소를 위해 집단치료가 적절하다는 윤혜인(2020)의 연구와 사회주의 영향으로 타인과 집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자아 성찰을 위해 집단미술치료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매화(2019)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선호도 등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지영, 하영미, 김은혜(2019)의 연구에서는 타 문화권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가치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각 나라의 문화에 따른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사는 참여자들의 문화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문화적 특성과 연결되는 연구 대상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사 자신과 내담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면밀하게 탐색하여 치료사로서 국제적 또는 다문화적 배경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 제공된 매체와 중재 내용의 분석 결과 미술치료는 중재 방법으로 그리기(44.5%)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임현진과 박소정(202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연구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조절이 용이한 종이류와 그리기 매체를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그리기는 말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기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용이(Nathan & Mirviss, 2011)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적절한 중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기에서 ‘이름 그리기(5.6%)’와 ‘신체 그리기(5.6%)’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로 첫 번째는 정체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의 이름을 소재로 한 시화자화상(김민아, 2011)과 만화 그리기를 활용한 자화상 그리기(이수영, 2007)에서도 이름과 신체를 주제로 한 그리기 활동이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 두 번째는 이름 그리기와 신체 그리기의 공통된 주제인 ‘감정 표현’과의 연관성이다. 이것은 언어적 장벽과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의 특성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적 활동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아와 관련이 있는 이름과 신체를 그리는 활동은 타지에서 자신의 존중받는 경험과 함께 자아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중재 방법은 만들기(24.1%)로 주목할 만한 주제는 자원과 잠재력 등이 있다. 이는 낮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내적 및 외적 자원을 형성하게 하여 안정감을 제공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하여 자기 회복을 돕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무용/동작치료 연구(양진숙, 차수정, 2016)의 경우, 중재방법으로 부채춤(47.82%)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부채춤은 무용 중에서도 신체를 적극적으로 사용(이성혜, 2020)하여 비언어적 방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통해 집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독무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군무를 통해 사회성 증진과 관계 형성을 통한 조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신진아, 안병주, 정승혜, 2015).

이처럼 해당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국의 무용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무용인 부채춤에 대한 이해를 함께 다루게 된다면 두 나라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박정선, 2019).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언어적 매체인 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의 문화까지 경험하게 되어 문화 적응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심리치료 학문 범주에서 적절한 무용/동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 이해, 심리정서지원, 공감, 자기표현의 심리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치료 연구(이지은, 문소영, 2017)의 경우, 중재 방법으로 타악기가 사용되었다. 타악기는 적극적인 신체 참여를 요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곽현진(2019)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타악기 연주가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음악치료 적용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나라 고유한 특성의 반영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곽현진, 2019). 따라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에서는 해당 연구와 같이 다른 악기에 비해 실수에 대한 부담이 적은 타악기 활용과 함께 그들의 문화적 특성도 반영한 음악으로 다문화적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치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드라마치료 연구(박우진, 이상무, 2016)의 경우, 중재 방법으로 소시오 드라마가 사용되었고 매체는 신문지, 칠판, 휴지 등 미술치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들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주된 활동인 등장인물 및 장면을 구성하고 실연하는 것은 주거나 받는 행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경험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기존의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Nathan & Mirviss, 1998).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드라마치료에 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함께 다룬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타지 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놀이치료 연구(오승희, 2011)의 경우, 중재 방법으로 모래놀이와 매체로는 모래놀이 상자 및 상징적 피규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적응 및 스트레스 관련 척도(38.4%)이며 다음으로는 정서 관련 척도와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척도(23.1%)가 동일한 비율이다. 적응 및 스트레스 관련 척도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SIS), 자기효능감 및 강점 관련 척도에서는 자기효능감 척도(SES)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며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연관성이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유학생 대

상 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영역 면에서 긍정적인 성향이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양적연구 결과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의 4가지 하위 영역, 자기효능감의 2가지 하위 영역, 성격강점의 1가지 하위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어 하위 영역 모두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를 이정민과 이미옥(2010)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중국인의 문화 특성 중 체면을 중시하고 강한 자존심으로 사전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사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심리치료에서는 참여자가 가진 문화적 특성이 연구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이 표현예술심리치료가 유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증진(이정민, 이미옥, 2010), 우울 및 불안 감소(이문, 2014; Kozyr,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이지은, 문소영, 2017) 등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다른 매체들을 사용한 연구들이지만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현예술심리치료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심리정서 지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정해진 구조나 방식을 단순하게 학습하는 예술 활동을 넘어서 타문화권의 유학생들에 대한 범주 확장, 유학 및 체류기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원들의 구분을 통해서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정수가 내포된 즉흥적이고 감정 표출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동 등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리학의 제 4세력은 다문화심리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Pedersen, 2001). 이러한 변화는 표현예술심리치료 영역에 영향을 주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임상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o, 2016). 즉 치료사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과 내담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임상 전문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amhi, 1995).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심리치료 분야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함께 개인의 상황, 집단치료의 장점들을 고려한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미술, 무용/동작, 음악, 놀이, 드라마는 언어에 제약 없이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의 내담자들이 서로 모여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표현예술심리치료 분야의 장점이자 연구 지속성의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다원주의 시대의 자문화 우월성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다문화적 풍요로움이 존재하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김진숙(1993).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Nathan, A. A. & Mirviss, S.(1998). *Therapy Techniques Using the Creative Arts*. Idyll Arbor.
- 고은진, 이진형(2018). 국내 청소년 대상 정서행동관련 핵심변인 중심 음악중재 연구분석.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8(1), 1-18.
- 고정윤, 김유정(2020). 중국유학생의 우울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따른 빛속의 사람 그림검사 반응 특성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1), 101-123.
- 곽현진(2019).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김령, 임선아(2021). 중국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외로움, 언어능력, 자기효능감과 학업중단의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705-717.
- 김민아(2011). *자기 이름을 소재로 한 시 창작과 자화상의 통합적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승일, 이문준(2021).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학습환경 사례연구. *무용예술학연구*, 83(3), 25-41.
- 김애순(1990). 성인기 성격발달에 대한 이론적 개관 (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74-88.
- 김지영, 하영미, 김은혜(2019). 문화다양성 담론의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75(3), 37-56.
- 마징징(2021).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박수정, 박미향(2015). 인지적 미술치료가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2(1), 181-200.
- 박우진, 이상무(2016).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소시오드라마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3(8), 99-124.
- 박정선(2019). Teaching Korean Dance Traditions Across Cultures: A New Approach. *무용예술학연구*, 75(3), 1-18.
- 소정(202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신진아, 안병주, 정승혜(2015).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부채춤 활용 가치. *한국체육과학학회지*, 24(6), 943-957.
- 양진숙, 차수정(2016). 한국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중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회지*, 27(3), 173-193.
- 오승희(2011). 모래놀이치료가 제한 중국 유학생의 외로움, 불안, 생활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징과모래놀이치료*, 2(1), 55-75.
- 윤혜인(2020). Group Art Therapy Intervention Case Study for First Year 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djustment Difficulties.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2),

- 이매화(2019).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집단미술치료 체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매화, 한경아(2019).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기이해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28(5), 967-990.
- 이문(2014). **무용/동작치료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중부대학교 대학원.
- 이선미, 김영순(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 25-60.
- 이성혜(2020). **부채춤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영(2007). **‘자화상 그리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1학년의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안나, 박경아(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9.
- 이정민, 이미옥(2010). 집단미술치료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6(1), 173-200.
- 이주혜(2019). 외국 여성유학생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인문사회**21, 10(2), 1223-1238.
- 이준영, 신호창(2018).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쟁점에 대한 상황인식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1(3), 71-118.
- 이지은, 문소영(2017). 타악기 연주활동이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9(1), 93-115.
- 임현진, 박소정(2021). 성인 스트레스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동향분석-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8(1), 249-270.
- 조영아, 전우택(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진미경, 조유진(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77-89.
- 최아린, 이매화, 한경아(2021). 비대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COVID-19 상황에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8(2), 369-395.
- Kozyr, A. (2018). **집단놀이치료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 Atkins, S., Adams, M., McKinny, C., McKinny, H., Rose, J., Wentworth, J., Woodworth, J.(2003). **Expressive Therapy-creative Process in Art and Life**. Parkway Publishers.
-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SAGE Publications.

- Malchiodi, C. A.(2004). *Expressive therapies*. Guilford Press.
- Morey, L. C. & Hopwood, C. J.(2008). Objective personality evaluation. In M. Hersen & A. M. Gross(Eds.), *Handbook of Clinical Psychology* (Vol. 1, pp 451-474). Hoboken, NJ: Wiley.
- Tuber, P., & Meehan, K. B.(2015). Projective measures of personality/pathology. In R. L. Caution & S. O. Lilienfeld(Eds.), *The Encyclopedia of Clinical Psychology* (pp. 2257-2265). West Sussex, UK; Wiley Blackwell.
- Kamhi, A. G.(1995). Defining, developing, and maintaining clinical expertise.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Schools, 26*(4). 353-356.
- Ko, K. S.(2016). Using Bodily Movement in Supervision for Expressive Arts Therapy Students: A Case Study. *The Arts in Psychotherapy, 48*(2). 8-18.
- Pedersen, P. B.(2001). Multiculturalism and the Paradigm Shift in Counselling: Controversies and Alternative Futures.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Revue Canadienne de Counseling, 35*(1), 15-25.
- 강홍준(2019. 11. 23). “불법체류 유학생 3년 새 1만 명 늘어... 베트남 국적 63%”.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39735#home>, 2021. 5. 25.>.
- 교육부(2000).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2021. 5. 25.>.
- 이상명, 이인아(2021. 6. 8). “소멸하는 대한민국 저출산 충격... 몰락하는 대학가”.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1335>, 2020. 5. 25.>.

논문투고일 2022. 02. 12.  
 심사일 2022. 02. 17.  
 심사완료일 2022. 02. 26.

##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Expressive Arts Therap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Lee, Hye Min\* · Ko, Kyung Soon\*\*

Graduate Student, Soonchunhy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expressive arts therapies research focusing on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earchers reviewed studies from 2008 to August 2021, selecting 9 out of a total 94 studies meeting criteria for inclusion. Participants were twenties, mostly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Their level of Korean literacy was above average or higher. Three studies had 6 participants, and had between 8 and 10 sessions, with session duration ranging from 45 to 180 minutes. Art therapy was the most common type of intervention, especially drawing; other interventions included fan dance, percussive instruments, sand play, and performance. The most common assessment tool was the Adaptation and Stress Index. The PITR test and 4 types of qualitative data were also used. Majority of studies showed positive results overall. This comprehensive study offers practitioners clear guidance on developing expressive arts therapies programs to successfully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across barriers of language and culture.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외국인 유학생), Expressive arts therapies(표현예술심리치료), Research trend (연구동향), Acculturation(문화적응), Stress(스트레스)